

대한민국 해양교육의 산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 해양강국 만들 인재들 꿈을 펼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최첨단 해양 종합훈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해상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할 인재를 키우고 해상안전 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여수시 오천동에 들어선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전경. 연면적 8만251㎡(건축면적 4만3603㎡)로 총 239명이 근무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3·1절 97주년을 맞아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일반 국민들과 함께 훈련함을 타고 독도 영토순례를 나서 독도를 배경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해양주권 수호의지를 다졌다.

◇여수 이전 후 해양교육 산실 새역사=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지난 2013년 11월 여수시로 이전하면서 신임순경, 신임 간부 후보, 직무교육 이수 직원, 신임의경 등에 대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 이전 후 현재까지 총 340회 1만 2905명이 교육을 받았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지난 2004년 5월 인천 영종대 해양경찰특공대가 쓰던 건물을 개조해 개교한 것을 시초로, 9년만인 지난 2013년 전남 여수로 이전하면서 해양교육의 새역사를 쓰고 있다.

새 교정은 최첨단 해양종합훈련시설로 구성돼 있다.

잠수복과 다이빙대를 포함한 50m의 수영장과 인공파도를 일으키는 '구조수영훈련장', 해상 선박재난상황에 대응훈련을 할 수 있는 '선박재난훈련장' 등 다양한 해양 종합훈련장을 갖추고 있다. 또 전국 경비함정중 두 번째로 큰 4200톤급 훈련함 '바다로'까지 보유하고 있다.

◇학생·해양 종사자 등 대국민 해양안전 캠프도 인기=여수로 이전한 이후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해양종사자 교육과 대국민 해양안전체험프로그램인 캠프를 통해 27차례에 걸쳐 1807명을 교육했다. 또 전국 청소년 및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교육과 일반인 견학을 해 지난해에만 1821명이 교육을 받는 등 '안전한 바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남권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한 해양교육 시범캠프에서 94%의 높은 교육만족도를 얻었으며, 올해는 배운손현주씨를 캠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내달 1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원이 자랑하는 첨단 안전대응 훈련 시설은 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안전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화학공정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여수산단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대비한 소화훈련을 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어업인의 항해사 자격증 취득 편의 위해 교육원이 보유한 첨단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국내 선사 안전관리 책임자를 초청해 해양재난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재난선박 비상탈출, 생존수영 등



## 해양주권 수호할 해양경찰 양성하고 다양한 체험캠프 운영 2013년 11월 여수 이전 후 총 340회 1만2905명 교육받아 전국서 방문객 늘며 경제활성화 기여...사회공헌 활동도 활발

다양한 교육훈련과 워크숍도 진행중이다. 여기에 초·중·고 교원 및 중앙·지방 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체험 교육도 하고 있다.

◇국제사회 안전 공조에도 기여=지난해 5월에는 7박 8일간 신임 경찰 교육생 71명이 경비정을 타고 중국 닝보까지 원양항해 훈련을 하고, '중국 공안 해경학교'와 교류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교육원의 우수한 교육 노하우도 해외에 전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KOICA 국제교육과정을 통해 7개국 해상치안담당 공무원들, 9월에는 케냐 해상치안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상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한국의 해양경비 및 해상교통안전관리와 수색구조시스템, 해운·국제물류 및 항만보안, 해양오염방제 관리 체계

등을 전수했다.

◇해양오염사고 방제 기술 등 첨단 신기술 개발 박차=부속시설인 안전연구소는 해양오염 사고 방제기술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과제별 4~5년의 연구기간 동안 총 253억원을 투입, 국가 R&D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방제 산업 기술력 증진을 위한 토대를 갖춰나가는 게 목표다.

또 해양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상호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재난 및 안전사고 기술개발 협력, 해양안전 분야 발전전략 구축 등의 분야에서 상호 참여와 자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해양R&D 협력사업도 강화중이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소외계층 돕기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지난해 9월 교육원 뒷밭에서 직접 기른 농작물로 김치를 담가 지역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주민에게 전달했으며, 교육원 교직원·의경, 치과, 사진사, 미용사 등과 함께 소외계층 주민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육 기관의 특성을 살려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97주년을 맞아 3·1절에는 훈련함을 이용한 영토 순례를 진행하고, 독도가 보이는 함상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애국심을 고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중이다.

또 일반인 교육원 견학을 물론 신임의경 교육생 가족면회 등 전국 각지로부터 교육원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김두석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치안감)은 "자체 교육생 외에도 교원과 공무원, 해양 종사자 등 해양 안전 핵심 전파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바다로 펼쳐나갈 내일의 국가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키워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